

# 광주시 대기환경개선사업 지원 확대

## 올해 708억 원 투입...전기차·배출가스 차량 4등급 확대 등

광주시는 '맑고 깨끗한 공기, 숨쉬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708억 원을 투입,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672억 원을 투입해 전기차 보급 등 15개 사업을 추진한 광주시는 올해 전주 거처형 전기차 충전기 설치, 냉난방 가스열펌프(GHP·Gasengin Heat Pump) 저감장치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추가, 총 17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 사업도 범위를 확대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전기자동차 보급에 458억 원을 투입한다.

보급 물량은 지난해보다 760대 늘어난 4800대로, 2021년 2205대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광주지역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 중 23%를 도로이동 오염원이 차지하는 만큼 전기차 보급이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충전인프라도 확대 구축한다. 충전시설 부족으로 인한 전기자동차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충전기기는 지난해 65기보다 170% 증가한

175기로 늘린다.

단독주택단지외 골목길 등 충전사각지대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업을 통해 한전 전주에 완속충전기 30기 이상을 설치하는 전주 거처형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운행 경유차의 조기 폐차 유도를 위한 지원금 대상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한다. 지원금은 오는 3월부터 7200대에 대해 166억 원을 투입한다.

광주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운행 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2만3000대에 404억 원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2019년 5만6000대에서 2022년말 2만3000대로 59% 줄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저감장치 부착 566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30대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250대 ▲어린이 통학 차량 액화석유가스(LPG) 전환 146대에 총 54억 원을 지원한다.

대형건물과 중소사업장 등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냉난방 가스열펌프의 저감장치 지원사업으로 대당 175만 원씩 103대를 지원한다.

주택용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은 대당 10만 원(저소득층 60만 원)씩 총 1만 2800대를 지원한다. /조일상 기자

## 게릴라성 집중호우 침수피해 광주시 선제 대응

광주시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도로 개질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상반기에 하수도 예산 94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상이변으로 매년 가뭄과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번갈아가며 도심 상가와 주택에 피해를 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침수와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최우선 반영해 지원한다. 우수 흐름이 좋지 않은 하수관에 대해서도 퇴적토 준설과 빔물 유입구 정비, 추가 설치 등을 지원·침수 피해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제2차 광주전략회의. 강기정 시장이 지난 27일 오후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광주전략회의에 참석한 뒤 정무상 시의회 의장, 각 상임위원장, 운영덕 국회의원, 안도걸 시 재정경제자문역 등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상속한정승인공고**  
광주가정법원

사건번호: 2023-단43 상속한정승인  
사망자: 유호준(1968년 07월 21일생)  
최후주소: 광주 광산구 월전로 10-68, 206호(월전동)  
위 망 유호준의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 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3년 1월 30일  
공고인: 유태준, 유정하  
주소: 광주 남구 제중로108번길 5-1 (서동)  
한정승인수리일: 2023. 1. 20.  
공고기간: 2023. 1. 30 - 2023. 3. 29.

## 전남 토지 면적 축구장 224개만큼 늘어...211억 규모

###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등으로 전년보다 1.6km² 증가

전남도는 지난해 말 기준 전남 토지 면적이 1만2361km²(123억6100㎡)로, 2021년 대비 축구장 224개에 달하는 1.6km²가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제곱미터(㎡)당 평균 개발공사지가(1만3193원)로 환산하면 211억 원 규모다.

이처럼 토지 면적이 늘어난 것은 무안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 6-2단계 0.55km², 보성 무주부동산 0.49km², 여수 거문도항 정

비 0.56km² 등이 신규 등록됐기 때문이다.

시·군별 토지 면적은 해남이 1044km²로 가장 넓고, 다음으로 순천 911km², 고흥 807.4km², 화순 787km², 보성 664.6km² 순이다. 필지 수는 해남 44만4000필지, 고흥 40만7000 필지, 나주 39만2000필지 순이다.

토지 이용 현황은 임야가 56.1%(6939km²)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농지는 25.7%(3174km²)로 나타났다. 이어 도로 3.7%(462km²),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 대(塿) 2.5%(315km²), 유지(溜池) 등 기타가 12%(1471km²)를 차지했다.

농지와 임야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다른 용도로 전용됨에 따라 비중이 줄어든 반면 간척사업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도로, 대, 공장 용지 등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전남의 토지 면적은 전체 국토의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필지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고, 면적은 경북과 강원도에 이어 세 번째로 넓은 것으로 집계됐다. /박종배 기자

## 광주시 올해 25억 투입 도심 빈집 정비

### 빈집 1492호 파악...상반기부터 정비

광주시는 올해 25억 원을 투입해 도심 빈집을 정비한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시와 각 구청은 지난해 진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빈집 정비 수요조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상반기부터 빈집 매입·철거·안전조치 등의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빈집은 각종 폐기물 투기로 주변 지역 미관과 위생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장소 제공 등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광주시는 2008년부터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빈집 797호를 정비(매입·철거·안전조치)하고, 2021년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 2024년까지 빈집 788호를 관리·정비하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신규 빈집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동구 410호, 서구 193호, 남구 363호, 북구 208호, 광산구 318호 등 총 1492호로 파악됐다.

빈집에 대해서는 노후·불량 상태와 위생성을 조사해 총 4등급으로 분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빈집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안전사고와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빈집 등에 대해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빈집 소유자는 60일 이내 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빈집 소유자가 공동 주차장·텃밭 등 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한 3년 이상 토지사용에 동의할 경우, 철거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조일상 기자

## '전남형 행복시책' 전국으로 확산한다

도 전기·난방·농어업유류비 선제 지원 '전국 선도' 나뉘었다.

전남도가 최근 강력한 한파와 역대급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운 취약계층과 도민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한 '전남형 행복시책'이 전국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난방비 급등으로 더욱 매서운 겨울을 보내는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국 최초로 긴급 예비비 111억 원을 투입해 가스요금 급등으로 난방비를 걱정해야 하는 홀로 사는 어르신과 한부모가정 5만5600가구에 2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해 온기를

또 도내 경로당 9212곳에 난방비 지원 단가를 지난해 한 곳당 160만원에서 올해 185만원으로 확대해 총 148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지원시설 외에도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까지 포함해 처음으로 도내 879곳 모든 시설에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로 5억5000만원 등 총 264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정부의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 발표 이전부터 도지사가 결정하는 주택용 소매요금을 최근 3년간 동결해 취약계층과 도민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줬다. /박종배 기자

## 섬·산간벽지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본격 운영

전남도가 올해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운영을 본격 시작한다.

전남도는 섬과 산간벽지에 거주하는 취약 지역 주민의 보건·복지·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를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서비스 질을 높이고 한층 더 다양한 통합서비스를 담아 더 많은 마을을 방문한다.

그동안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보건·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새롭게 도입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지난해까지 제공했던 보건 3종, 복지 7종, 의료 2종, 상담 2종 등 14종의 서비스에서 20종으로 확대해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한다.

새롭게 추가해 운영하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스트레스 검사, 산소포화도 검사, 반려식물 키우기 체험 활동, 작은 영화관 운영 등이다.

3D 구현 내부, 외부 영상 제공

010-6265-0057

# 전원주택 · 조림식주택 홈인테리어 · 상업인테리어



**철골 공사**  
조림식주택 목조주택 이동식주택  
건축 공장 창고  
방부목데라스 축사 토목  
인테리어 리모델링



